

# 추위쯤은 지만치...받은 만큼 돌려주는 바다를 닦아

[밭로 달는 잠녀의 삶]한림읍 한수리

등록 : 2007년 01월 28일 (일) 16:27:18  
최종수정 : 2007년 01월 28일 (일) 16:27:1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작업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 오전 일찍 진행되던 잠녀취재였다. 한림읍 한수리에 와서 취재는 '기다림'으로 바뀌었다.

어촌계장이 잠녀라는 점 때문에도 그랬고 한참 소라와 오분자기 작업이 진행되는 때여서인지 하루별 이를 포기시키면서까지 욕심(?)을 내기 어려웠다.

귀가 메일 듯 불어대는 찬바람, '혹시나' 하는 기대와 달리 잠녀들의 작업은 아침 일찍 시작됐다. 그리고 오후, 한시간을 기다렸을까, 선착장 쪽에서 툭툭한 목소리가 쏟아진다.



▲ 한림읍 한수리 해녀들에게 바다는 바로 삶이다. 앞바다로 비양도는 물론 바깥물질도 마다하지 않으며 잔뼈가 굵었다고 했다<김대생 기자>

△“삶을 영위할 것이라곤 바다 밖에 없었다”

'너덧시간 넘게 겨울바다에 몸을 넣었다'는 생각만으로도 이가 부딪힐 정도였지만 잠녀들의 손은 시종 재빠르게 움직인다.

망태기 안에서 성게와 오분자기 등을 골라놓고 그 중에 상품으로 팔 것과 다시 물에 넣을 것을 고른다. 젖은 고무옷은 벗지도 않은 채다. 조심스레 카메라를 대보지만 그네들의 움직임을 중단시킬 것이라곤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취재는 잠녀들이 뒷작업이 다 마무리된 뒤 불턱을 대신하는 석유난로 옆에서 시작됐다.

한수리 어장 면적은 32만9000㎡, 그다지 넓지 않은 바다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삼시잠녀만 11명에 이른다. 이곳 역시 고령화로 직접 물질을 하는 잠녀의 수는 크게 줄었다.

한수에는 토박이 잠녀가 많다고 했다. 40대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잠녀가 비양도 출신, 한수와 바다를 같이 쓰는 대림 해녀 5명(원래는 6명이지만 이중 1명은 타 지역에 갔다고 했다)을 제외하고는 다 이곳 출신이다.

80대 2명, 70대 9명…수를 세고 이름을 확인하는데도 이내 “누구 어멍” “누구 조카”하는 설명이 따라 붙는다.

바다 의존도가 높은 이곳 잠녀들은 8·9월만 빼고는 거의 물에 든다고 했다. 11월 해경 이후 12월부터 이듬해 1·2월은 날씨 때문에 한달에 3~4일 정도 작업을 하고 3월 이후 6월 금채기 이전까지는 바다 작업이 전부다.

홍경자 어촌계장(58)은 “여기는 특별한 물부업이 없어서 물질을 많이 한다”며 “이번달은 소라 수매가 중단돼서 거의 비양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수잠수상까지 받은 관록의 홍 어촌계장은 “물질이야 친정어머니한테서 배웠지만 처음에는 그게 물질인지 뭔지도 몰랐었다”며 “지금은 잠녀수가 크게 줄어서 현 자산에 대한 권리행사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촌계원으로 가입시켰으면 싶다”고 말했다.

#### △관리할수록 나눠주는 바다, 그 바다를 닦은 잠녀들

한수 바다는 약속의 바다다. 7cm이하의 잔소라를 어촌계 자금으로 구입, 당연목에 뿌리고 1년에 한번 공동작업을 통해 수확한다. 잔소라를 구입하는 어촌계 자금은 불가사리 제거 등으로 받은 상금이나 지원금이다.

오분자기도 여름 3일만 작업을 한다. 절눌지 앞에는 전복 종패를 뿌려놓고 잠녀들이 번갈아가며 관리를 한다. 작업 역시 꼭 정해진 날짜에 공동으로 한다.

암지가 많은 탓에 이 곳 바다에는 어장 면적에 비해 툫이 많이 난다고 했다. 3월이면 한림 공동어장은 물론 한수에서만 별도로 툫작업을 한다. 보름에 한번 어장 청소를 하고 만약 청소에 참가하지 못하면 툫대금에서 ‘벌금’을 제한다.

지금은 백화현상 등으로 많이 황폐해졌지만 한수 지선 어장 어디서나 전복이 낫고, 어루개에는 오분작기와 해삼, 천초가, 수원과의 공동어장인 캔여에서는 소라가 많이 낫았다.

홍 어촌계장은 “한창대는 하루만 50만~60만원을 벌 정도였다”며 “예전에는 서로 하겠다고 나섰지만 지금은 하던 사람도 그만둘 정도로 사정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바다벌이가 적어진 대신 어촌계사업이 부지런히 진행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마을과 함께 ‘한림바다 생태마을’ 등을 운영해 임대료 등을 어촌계 운영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잠녀 수익중 3%는 어촌계 운영비로 사용하고, 행사료 명목의 2%는 어장 재투자 및 자원 조성비로 적립해 투석·종패사업 등에 사용한다.

공동작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기금 마련을 위해 쓰이고 나머지중 일부는 동네 어르신을 위해 사용한다. 크지는 않지만 두달에 한번정도는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효도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개발 바람에 이 곳 바다도 여기저기 생채기가 났다. 마을사람들의 식수 등으로 활용되던 하물 등 용천수 중 일부는 매립 과정에서 없어졌고, 죽 뺀 해안도로 때문에 대벙원·실장원 등 ‘원’은 이제 그 흔적만 남아있다.

잠녀들에게 시간은 그저 앞만 보고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아낌없이 줄 것만 같던 바다는 이제 사람들의 ‘욕심’을 타박하듯 그 바닥을 드러내고, 무거워진 나이의 무게만큼 잠녀들의 숨비소리 역시 힘을 잃어간다. 잠녀들의 삶을 따라가는 손과 발이 바빠지는 것은 비단 날카로운 겨울바람 때문만은 아닌 듯 하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림읍 한수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